

차자표기연구와 중국음운학

李 得 春

1. 이른바 이두음의 원류와 상고 한자음의 관계
2. 차자표기 음독한자와 중국어
3.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한자를 서사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문자가 창제되기 이전의 장구한 역사시기에 한문만이 아니라 이두식표기에서도 한자를 써 왔다는 것 역시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서 이두를 포함한 모든 차자식 표기에서 한자의 음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해독이 옳은가 그른가에 따라 우리의 역사문헌에 기재된 고유어의 역사적 진모를 올바르게 밝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여러 면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자식 표기를 고찰함에 있어서 중국 음운학과 연계시켜 해명할 수 있는 몇개 문제를 말해 보려 한다.

1. 이른바 이두음의 원류와 상고 한자음의 관계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이두어들이 그것들이 어째서 그렇게 읽히고 있는지를 해명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쉽게 해명할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두 단어 “物物, 更良, 自以, 隨乎”, 이두 토 “是, 乙, 置, 如可, 去等, 去乙”, 그리고 단어와 토가 합성된 “爲良只, 爲遣, 使內不多爲良置” 같은 것들은 해당 한자의 뜻과 음으로부터 그 독법이 산생되었다는 것을 의심없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은 고증이 없을 경우 그 독법의 연유를 알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다.

례 : 爲乎矣(하오되)
爲矣(하되)

不喻(아닌디)
 喻乃(디나)
 是隱喻(이은디)
 教喻乃(이실디나)

이러한 단어들에서 “矣”가 “되(티)”로 읽히거나 “喻”가 “디”로 읽히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가? 어쩌서 현대 한자음과는 달리 성모(聲母) “ㄷ”를 갖고 있는가? 이것들은 중세나 현대의 한자음으로는 그 독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矣나 喻는 유모(喻母) 4등자들이다. 유모 4등자는 상고한어에서 성모가 [d], [d']로 된다.⁽¹⁾

중고한어에 이르러 矣는 유모 3등자에 편입되면서 그 음이 [viə]로 되었고 喻는 의연히 4등자로서 [jiu]로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두에서 자음 “ㄷ”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자수용초기의 중국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것들은 한자음의 운서적 변화와는 관계없이 이두음으로 오늘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음에서는 벌써 4세기 이전에 [d]가 변화되었으나 이두음에서는 이두독법의 전통성으로 하여 수용초기의 음이 계속 쓰이면서 운서적 한자음에서 자음이 탈락되어 버린 것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해 왔다. 이두가 맹아(萌芽)시기의 조선한자음과 관계되며 아울러 상고시기로부터의 오랜 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음은 상고한어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훈몽자회》에서 일부 유모 4등자가 “ㄷ”, “ㄷ”로 읽힌 것이거나 현대한자음에서 일부 유모 4등자가 “ㄷ”, “ㄷ”, “ㄷ” 등으로 읽히고 있는 것 역시 상고한어가 아니고는 그 원류가 다른 데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대부분 유모 4등자가 령성모(零聲母)로 된 형편에서 일부가 그렇게 되지 않은 현상은 이두음에서 “ㄷ”로 읽힌 원인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예 :

《훈몽자회》한자음의 예 :

蜩 梗開四入昔喻 羊益切 텃 yi(중국어병음)
 鞞 梗開四去祭喻 餘制切 데

(1) 王力 《漢語史稿》，科學出版社，1958年，66,72쪽.

矣의 현대중국음은 [i]이고 喻의 현대중국음은 [y]이다.

현대한자음의례:

簷	咸開四鹽喻	담	yán(중국어병음)
檐	咸開四鹽喻	첨	yán
熠	深開四緝喻	습	yi
蠅	曾開四蒸喻	승	yíng
葉	咸開四葉喻	섭	xié
楫	咸開四葉喻	첩	
釋	梗開四昔喻	탁	
移	止開四支喻	체	

이상과 같이 이두에서 矣, 喻가 “되”, “디”로 읽히는 것이나 훈몽자회나 현대한자음의 일부 유모 4등자가 령성모로 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한자수용초기 상고 한자 중국음의 흔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이두어 “召史”를 “소사”라고 읽지 않고 “조이” 혹은 “소시”라고 읽는다. 무엇 때문에 召자를 “조”라고 읽거나 史자를 “이”나 “시”라고 읽었겠는가?

따져보면 召는 광운에서 정(澄)모와 선(禪)모에 결합하여 속했었다. 정모는 한국어 “ㄷ”에, 선모는 한국어 “ㅅ”에 대응된다. 정모는 구개음화하면 “ㅈ”로 되는 것이다. 이렇고 보면 召의 이두음은 결국 중국음 정모에 기원을 두고 있다. 史를 “시”, “이”로 읽는 것은 정치자나 치두자들이 고대시기에 모두 모음 《ㅣ》를 가졌던 역사와 관계된다. (이에 대해선 본 문장의 다음 부분에서 말하려 한다.)

“必者赤, 達魯花赤, 火兒赤, 時波赤, 迂達赤, 忽赤, 吹螺赤” 등에서 赤을 “치”, “지”로 읽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에서 생긴, 한국어에만 있는 음이라고들 말한다. (2)

따져 보면 赤이 “치”(지)로 읽히고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몽골어 차용어이다. 정음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단어들은 수용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13~14세기에 몽골의 조선침략 과정에 수용된 단어들이었다. 당사로 놓고 보면 한어음운사에서 입성이 없어지던 시기이다. 《증원음운》(1324)에서 보면 赤은 벌써 [ts'i]로 되었다. 이자 운모의 음운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고] iäk → [중고] iek → i[근고] → l[현대] (3)

(2) 金鍾埴 《韓國固有漢字研究》(集文堂, 1983), 《새옥편》(평양, 1963)

(3) 王力 《漢語史稿》164, 84쪽.

이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음문자 창제 이전 만주어나 몽골어의 인물조성접미사 “치”를 중국어 차용음으로 가차한 것이 곧 赤자이다. 達魯花赤를 “다루가치”, 時波赤를 “시바우지”로 읽은 것을 보면 이 단어들이 중국어 원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더욱 뚜렷하다.

어떤 옥편들에서 𪛗의 음을 “삭”, “소”라 하고 帖의 음을 “첩”, “체”라 하면서 “소”나 “체”는 이두음 또는 조선에서 생긴 음이라고 한다.

예 : 弓𪛗(《역어류해》) 궁소
 𪛗毛(《육전조례》) 소모
 帖子(《고금석림》) 폐즈(《어록변중》) 체자
 (《유서필지》) 체즈

결국 “소”, “체”는 조선어에서 생긴 음인 것이 아니라 중국 근고음의 차용음이고 “삭”, “첩”은 운서적인 한자음인 것이다. 근고한어에서 𪛗는 [sau]이고 帖은 [t'ie]이다. 현대한어에서는 [suo], [t'ie]이다.

신라향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타난다.

逢鳥支惡知作乎下是(《모죽지랑가》)
 맛보기 아디 지소아라
 此盼喰惡支治良羅(《안민가》)
 이홀 머거디 다스라라
 國惡支持以支知古如(《안민가》)
 나라아디 디니디 알고다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도솔가》)
 참다운 마음의 명으로 브리아디(4)

대부분의 향가 해석가들은 惡知, 惡支, 惡只를 똑같이 “아디”(토)로 풀이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옳게 말 못하고 있다. 오직 知(디)와 支, 只가 형태상 같다는 의미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다. 실제상 支, 只 역시 한자수용 초기에 “디”로 읽히게 된다. 전대훈(錢大昕)은 “古人多舌音, 後代多變齒音, 不獨知徹澄三母爲然”(《十駕齋養新錄》)이라 하였다.(5) 따라서 많은 음운학자들이 照穿牀모의 3등자들이 知徹澄과 유사한 성모로 되어있었음을 증명하였다.

(4) 번역문은 《향가해석》(홍기문)에 의한다.

(5) 《漢語史稿》科學出版社, 1958年.

- 支 章支開三平止〔古〕章支 t̪ie(《한자고음수책》)
 支 支部開三平〔上古〕tjiev〔切韻〕tiI(《신편상고음운표》)
 只 章紙開三上止〔古〕t̪ie(《한자고음수책》)
 只 支部開三平·上〔上古〕tjiev〔切韻〕tiI(《신편상고음운표》)

이처럼 支나 只의 음은 知음을 가차한 것도 아닌바, 상고음이 원래 혀소리음이었던 것이다.

《삼국사기》 권 제13, 고구려본기 제 1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 一云鄒牟, 一云衆解. (衆解, 恐當作衆牟)

전대흔의 말대로 보면 東, 朱, 鄒, 衆자의 성모는 모두 [t] 내지 [t̪]로 같았을 것이다. 明, 蒙, 牟의 성모는 틀림없이 [m]였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다음과 같은 동음관계가 이루어진다.

東明 = 朱蒙 = 鄒牟 = 象牟

이러한 동음이자현상은 삼국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鎮嶺縣本百濟眞峴縣(眞一作貞)景德王改名今鎮岑縣(권36 잡지 제 5 지리 3)
 祁梁縣本百濟屈直縣景德王改名今新昌縣(동상)
 屈旨縣-云屈直(권37 잡지 제 6 지리 4 고구려 백제)

屈直縣은 지금 牙山郡新昌面이다. 이 지명들에서 보면 屈旨와 屈直이 같다고 하고 眞峴과 貞峴을 같다고 한것은 直, 貞의 성모가 旨, 眞과 같이 “ㄷ”였음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향가 처용가의 한 구절을 보자.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支가 “디”로 읽힌 형편에서 誰支는 “누디”에 대한 표기라고 보아야 한다. 誰支는 마치 闕智(아디)가 “아기”로 변했듯이 “누기”(합북방언)로 변했을 것이다.⁽⁶⁾

(6) “디>기” 변화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음변화유형이다. 줄고 <역사적 이화 현상으로서의 《디>기(ㄷ→기) 변화>를 참조하라(《언어문학학술논문집》 1991. 7. 연변인민출판사

2. 차자표기 음독한자와 중국어 음운변화와의 관계

삼국사기의 지명표기거나 또는 기타 문헌들에서 오늘의 한자음으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한자음도 변하여왔다는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한자음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중국음의 영향을 수시로 받아 수용된 음을 수시로 바꿀 수 있었으며 조선한자음이 확립된 이후에도 자체의 체계로써 고유어 음운체계의 제약을 받는 일면이 있는 외, 중국음과 간접적으로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수용초기에도 이렇고 수용이후에도 이렇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자표기 역사와 중국어 음운사의 변화를 연계시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생긴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王曰：朕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其意甚高，是其果乎。對曰：然。王曰：然則爲朕作理安民歌。(권2 경덕왕)

균여전에도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十一首之鄉歌，詞清句麗，其爲作也，號稱詞腦(제 8 역가현덕분)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思內(一作詩惱)樂，奈解王時作也。(권32 잡지 제 1)

또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聖上(麗顯宗)乃御製依鄉風體歌，遂宣許臣下獻詩腦歌者亦有十一人(玄化寺碑陰)

이상의 예문들에서 詩惱와 思內는 같은 말로 표기되어 있으며 思內는 또 詞腦와 같은 말로 표기되고 있다. 여기서 詞나 思의 음이 詩와 통하고 있다.

詞=思=詩

新羅의 국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다.

國號曰徐耶伐，或云斯羅，或云斯盧，或云新羅。(삼국사기 권34 잡지 3 지리 1)

國號徐羅伐，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以此故也)，或云斯羅，又斯盧(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

《제왕운기》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檀君據朝鮮之域爲王，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皆檀君之壽也(하)

여기서 보면 斯羅, 斯盧와 尸羅는 다 같은 하나의 이름을 나타낸 것들이다. 또다시 다음과 같은 중국문헌의 한 구절 기록을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⁷⁾

第九世紀—即我國晚唐時代—阿刺伯商人所著中國游記，或稱中國濱海方面與 Sila諸島爲界……此必指朝鮮，是時半島全部方在新羅王國統一之下。中國亦稱之曰斯羅。

이상의 예문들에서 斯羅, 斯盧와 尸羅가 같은 말이며 斯羅는 당시 [sila]로 읽혔음도 밝혀지고 있다. 新羅 역시 같은 말의 표기라고 느껴진다. 그러니 斯와 尸는 같은 음이며 또 si와 같다.

斯=尸=si

삼국의 지명들에서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들이 다른 한자로 표기되는 것들이 많다.

岬，俗云古尸。故或云古尸寺，猶言岬寺也(삼국유사 권제 4 원광서학)

岬城郡本百濟古尸伊縣(삼국사기 권36 잡지 5)

신라와 백제에서는 岬에 대하여 古尸로 음독표기를 하였던 증거이다. 고구려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보기로 하자.

泉井口縣—云於乙買串

穴口郡—云甲比古次(삼국사기 권37 잡지 6)

첫번째 예에서 串과 口가 대응된다. 《만기요람》군정편에서는 조선남해의 “고지곶”을 串岬이라고 썼으며 《예덕선생전》(박연암)에서도 서울의 “살고지”를 箭串이라고 했다. 결국 串은 “고지”에 해당된다. 두번째 예에서 口에 대응되는 것은 古次이다. 이라고 보면 “古次” 역시 “고지”와 같은 말이다. 그리고 “고지곶”(串岬)에서 岬과 “곶”이 대응되고있는데 “암림곶”(暗林串) [용

(7) 汪榮寶《論歌戈魚虞模古讀》，北京大學國學季刊一卷二號。

비언천가] “동외곶”(冬外串) 등에서는 串과 “곶”이 대응되고 있다. 결국 串과 岬은 같은 말에 대한 부동한 글자표기이다.

모두어 보면 의독으로 고구려에서는 串을 쓰고 신라, 백제에서는 岬을 썼고 음독으로 고구려에서는 古次를 쓰고 신라, 백제에서는 古尸를 썼다. 이들은 다 “고지”라고 읽었거나 축약형태 “곶”으로 읽혔다. 일본어에서 口를 くち, 串을 くし, 古次나 古尸를 こし라고 하는 것도 그 방증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통음관계가 형성된다.

尸=次

삼국사기에는 또 다음과 같은 지명들이 기록되고 있다.

孔巖縣本高句麗齊次巴衣縣(권35 잡지4 지리2)

松峴縣本高句麗夫斯波衣縣(권35 잡지4 지리2)

烏兒縣本百濟烏次縣(권36 잡지5 지리3)

위의 예문에서 보면 고구려 지명에서의 巴衣, 波衣는 “바회>바위”의 표기이다.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平準押(平唯押)에 대하여 別史波衣라고 한데 반하여 《증보문헌비고》에서는 別史波兒라고 하였다. 이로써 衣는 兒와 같은 음으로 가차되고 있으며 兒는 또한 烏兒와 烏次에서 보여주다 싶이 次와도 통해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향약구급방》에 기록된 居兒乎(蚯蚓)를 들 수 있다. 이는 중세의 “거의, 거쉬, 거위, 것위, 겹위”, 현대의 방언 “거시(지렁이)”와 맞물린다. 따라서 兒는 “이”거나 “이”가 포함된 겹모음의 표기이다.

衣=兒=次

정약용의 《아언각비》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牌子者軍令之書傳也……然且牌子亦謂之牌旨.

여기서 보면 牌子와 牌旨를 같은 말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통사 언해》(중25)에는 다음 구절이 있다.

徐五的徒弟李大. 徐五의 메시 李치.

보다싶이 弟子가 “메시”로 된 것이다. 이는 “碟子”를 “접시”라고 하는 것

과 같다.

《향약구급방》의 茄子(향약목9), 梔子(향약목6)는 15세기에 이미 “가지”, “지 지(지자)”로 표기되고 있다. 子자가 “지”로 되는 것은 아주 오래고 뿌리깊은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여 지금도 그 예들을 수두룩이 남기고 있다.

장지문(障子門)	백지(白子)
종지(鐘子)	단지(壇子)
널빤지(~板子)	창지(腸子)
빈지(板子)	양지(樣子)
빈지문(板子門)	단지(團子)
흑지(黑子)	

子=旨

두번째 부분에서 말한 모든 자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동음관계가 이루어진다. (8)

詞, 思와 詩
 斯와 尸
 次와 尸
 衣와 兒, 兒와 次
 子와 旨

무엇때문에 이러한 동음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오늘날의 한자음으로는 도저히 가차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역사문헌에서는 왜 가차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직 한국어와 중국어의 역사적 변화와 그에 따른 한자음의 변천 속에서 고찰해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동음관계에 놓인 한자들을 중국어(漢語) 등운과 우리 말 독음에 의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漢字)	(等韻)	(漢語上>中古音)	(中世朝鮮音)	(現代朝鮮音)
④ 思	止開四之心	ia>ia	스	사
詞	止開四之斜	ia>ia	스	사
斯	止開四支心	ie>ie	스	사
次	止開四至清	iei>i	츠, 즈	차, 자

(8) 삼국시기 현대음의 ㄷㅅㅈㅊ는 혼용되고 있다. 예: 秀宗(精)一秀升(審), 章和(照)一昌花(穿), 知留(知)一至留(照), 屈自(從)一仇史(審)

兒	止開三支日	ie>ie	ㅅ	아
子	止開四止精	iə>ia	ㅈ	자
史	止開二止牀	iə>iə	ㅅ	사, 이
⑧ 詩	止開三之審	iə>iə	시	시
尸	止開三脂審	iei>i	시	시
衣	止開三微影	iei>iai	의	의
旨	止開三旨照	iei>i	지	지 ⁽⁹⁾

정리된 글자들에 의하여 몇개 문제를 고찰해 보려 한다.

① 고운 16섭중의 지섭개구(止攝開口) 치음자는 한어에서 증고나 상고사기에 성모에 관계없이 2, 3, 4등이 같은 운모(모두 모음 [i]를 포함)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23)와 치두(4)의 구별이 없다. 이는 思詞斯次子(치두) 史(정치2) 兒⁽¹⁰⁾자가 詩尸旨(정치3)衣자와 같은 음으로 통하여 쓰인것과 꼭 같다. 그러므로 삼국시기에는 치두자들도 정치자들과 마찬가지로 [i]거나 [i]를 포함한 어떤 모음을 운모로 하였을 것이다. 아랍상인이 斯를 [Si]로 읽었거나 전통적으로 子자를 “지”로 읽은 현상이 다 같은 원인에서이다.

② 그러나 중세 한국한자음에 이르러 치두자는 “·”로, 정치자는 “|”로 구분되고 있다. 주지하다싶이 등운에서는 뒤모음 또는 아래모음으로부터 앞모음 또는 앞높은모음에로의 이동에 따라 4개의 등을 나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는 4등위치에 놓이지만 “·”는 절대로 4등 위치에 놓일수 없다.⁽¹¹⁾

중국의 남송시기에 나온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는 그 이전 시기의 《운경》(韻鏡)과 《사성등자(四聲等子)》 등에서 4등에 배비했던 자들을 1등의 자리에 옮겨놓았다.

《운경》內轉四六八：

1등 ○

2등 齶差醜(支) 醜(紙) 柴屣(置) 師(脂) 菑荏(之) 滓士史俟(止) 截厠事駸(志)

3등 支疵施匙(支) 紙侈舐弛氏(紙) 置翹跂(置) 脂鷗尸(指) 旨矢視(旨) 至示屍嗜(至) 之岾詩時(之) 止齒始市(止) 志熾試侍(志)

(9) 郭錫良《漢字古音手冊》，北京大學出版社 1986；王力《漢語史稿》，科學出版社 1958. 清 梁僧寶《切韻求蒙》《四韻韻譜》

(10) 兒, 衣는 지섭 3등 자로서 치음자는 아니다. 증고까지 지섭한자의 음은 리모자나 일모자도 치음자와 같았다.

史는 2등자지만 4등자와 같이 되었다. 2등의 일부 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11) 《훈민정음해례》：“·舌縮而聲深”，“|舌不縮而聲淺”.

4등 貨雌斯(支) 紫此徙(紙) 積刺漬賜(置) 咨郵茨私(脂) 姊死兕(旨) 恣次自四(至)
 茲慈思詞(之) 子棠似(止) 恣笥字寺(志)

《절운지장도》十八圖

1등 茲雌慈思詞(平) 紫此死兕(上) 恣自笥寺(去) 則賊塞(入)
 2등 菑差荑師榮(平) 滓士隴俟(上) 截廁事駛(去) 櫛瑟(入)
 3등 之眇時時(平) 紙齒弛是(上) 志熾試示(去) 質叱失實(入)
 4등 賈妻齊西(平) 濟泚齋臬(上) 濟砌細(去) 唧七疾悉(入)⁽¹²⁾

위의 예를 통하여 《운경》에서 1등 자리가 전부 비었으며, 2, 3등 자는 대체로 《절운지장도》와 구별이 없음을 보았다. 《절운지장도》에서 《운경》에서의 4등 자들을 1등 자리에 옮긴 것은 한어에서의 치두자와 정치자의 분화를 보여준다.⁽¹³⁾ 따라서 두 운서의 대비에서 우리는 15세기 한국어 지섭한자의 치두음과 정치음의 대립이 《절운지장도》와 상사한 정형임을 발견하게 된다 (“ㆍ”음은 1등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삼국과 통일신라 시기의 통음현상은 2, 3, 4등 치음자가 일치되던, 다시 말해서 4등의 치두자가 2, 3등의 정치자와 일치되던 《운경》의 배열법과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¹⁴⁾

③ 운경으로부터 절운지장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하나의 역사적 시기로서 구경은 부동한 시기의 중국어 음운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기 문자가 없던 그 시기에 한자를 서사도구로 중국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고 또 과거 제도에 의한 한자음의 규범으로 하여 중국운서를 멀리할 수 없었던 여건에서 한국 한자음변화에서의 한어와의 관계를 완전히 밀어버리기 어렵다. 《운경》의 4등 자가 《절운지장도》의 1등 자로 옮겨진것은 12세기 한어음운의 실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에서 단일한 “ㅣ”계열에서 “ㆍ”가 분화되어 배태된 것도 이 시기 중국어 음운변화와의 관계속에서 산생된 현상이 아니었을가 추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ㆍ”가 분화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중세 이전시기 고유어 어음체계에 “ㆍ”음이 없었다는데서도 그 근거를

(12) 《韻鏡》，古籍出版社，1955版. 《切韻指掌圖》，商務印書館. 中華民國二十五年六月初版.

(13) 《漢語史稿》163쪽：“止攝精系字讀 1 的時代很早，切韻指掌圖把‘茲’‘雌’‘慈’‘思’‘詞’一類的字排在一等(本來在韻圖屬四)，等就表示它們的韻母已經是個 1. 由此可見，韻母 1 的產生不能晚於十二世紀”.

(14) 본 문장에서 치두자, 정치자라고 한 것은 지섭 개구자(止攝開口字)에만 한 것이다. 그 음가 설명에서는 모음(즉 운모)만 가리킨다. 합구자(合口字)거나 다른 섭의 치음자는 소급하지 않는다.

찾을 수 있다. ⁽¹⁵⁾

④ 《절운지장도》는 한어음운사에서 정치와 치두가 구별없던 데로부터 치두자가 [l]로 분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그 후의 《중원음운》에 이르러 支思운을 설정했던 것이다. 한국어의 “ㄹ” 모음을 가진 한자와 중국어의 혀끝앞모음(舌尖前音)이 뚜렷이 대응되는 것은 그 변화의 인접성을 일층 더 확증해준다. 두 언어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한국어]
[1] (치두자)	· (卜) (치두자)
[l] (정치, 설상자)	l (정치, 설상자)
예 : 玆[ts1]	자
詞[ts'1]	사
思[s1]	사
至[tʂl]	지
齒[tʂ'1]	치
尸[ʃl]	시 ⁽¹⁶⁾

⑤ 《운경》이 장기간 성행된 일본의 한자음에서 본 문장에 열거한 통용자들이 다 [i]로 되어있다. 《운경》은 비록 중국의 것이지만 송나라때에 일본에 유입되고 중국내에서는 유실되었다가 청나라말엽에야 다시 중국에 알려졌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일본한자음에 대한 《운경》의 영향을 말해준다. 일본한자의 치음자들은 방불히 3국시기 한자음을 연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삼국시기의 통음현상과 《운경》과의 관계를 측면적으로 확인해 준다.

⑥ 이상의 모든 것을 귀납하면 한국한자음에서의 지섭의 정치와 치두의 분화는 《절운지장도》와의 상사성을 보여주며 그 이전 시기에는 《운경》을 따라 [i] 또는 [i] 모음을 가진 음절속에 통합되어 있었다고 말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15세기의 한자음 모음 “ㄹ”은 삼국시기와 통일신라시기에 모음 “l”거나 또는 그것을 포함한 일종의 겹모음이었다.

(15) 유철 : 《상고조선말의 어음체계》(《조선어문》 1958. 4), 홍기문 《고대조선어의 어음체계》(《조선과학원학보》 1954. 7), 김영환 《조선민족어발전역사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16) 개별 글자 외 기본상 대응된다. 줄고 <與漢語舌尖元音對應的朝鮮語漢字音及其演變>(《延邊大學學報》 1980. 2) <조선한자음의 상고음>(《延邊大學學報》 1980. 4)

3.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본 문장의 첫째와 둘째 부분에서 의론된 결과에 의해서 종래의 일부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우리의 저서들에서 召諭帖藥媿赤 등이 “조지체소시치”로 읽히는 것을 “국음자” 또는 “우리 나라에서 생긴 음”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음은 조선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본 문장에서 분석해 본데 의하면 이는 원류가 중국음에 있으며 그것을 차용해 수용한 음이다. 다만 확립된 운서적 한자음과 다를 뿐이다.

본 문장에서 삼국시기의 고유어를 적은 한자들에서 支只衆朱貞直旨 등이 혀소리 성모였다고 말하였다. 그것을 삼국사기의 지명연구에 응용해 본다.

三岐縣本三支縣(권34 잡지3 지리1)

多岐縣本百濟多只縣(권36 잡지5 지리3)

예문에서 본래 只·支로 표시된 자들이 岐로 대치되었다. 무엇때문인가?

岐는 群모 支운에 속하며 한어상고에 [gie]로 읽혔다. 따라서 多只나 三支가 多岐나 三岐로 된것은 고유어의 “ㄷ”음이 지명개편시에 벌써 “ㄱ”로 바뀐 새로운 현실음을 적은 것이다. 역사적 이화현상 《디>기》 변화과정을 당시의 한자음으로 적은 철증이다. 이 경우에는 두 한자사이의 동음관계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변화적인 고유어음에 충실하여 고유어의 음운변화를 제 나름의 한자로 적은 것이다.

신라향가 원왕생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여기에서의 去賜里遣을 小倉進平의 《향가 급 이두의 연구》, 양주동의 《조선 고가연구》, 홍기문의 《향가해석》들에서 모두 “가샤리고”라고 읽었다. 賜를 “샤”로 읽은 근거는 어디 있는가? 마땅히 “시”로 읽어 “가시리고”라 하여야 할 것이다. 양주동은 賜는 “고금석문에 존칭 조동사로 ‘샤’에 잉용

(仍用)되었다”고 하였다. (17) 어떤 사람은 한결음 더 나아가서 존칭토의 “시”는 賜以 또는 賜伊 형태의 발달이라고 처리해 버렸다. 과연 賜가 존칭토 “시”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샤”를 나타낸 것일까? 그럴수 없다. 만약 賜를 “시”로 읽지 않고 “샤”로 읽는다면 존칭토의 역사적 형태 해명에도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한자음의 연혁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면서도 주관적인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다. “향가와 이두에서의 賜가 구역인왕경구결에서 示의 약체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스>시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8)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 자가 먼저 “시”로 읽혔던 역사를 보지 못한데서 생긴 오유적 결론이다. 구역인왕경에서 示로 賜를 표기한것은 바로 그 시기에 그것들의 음이 같았기 때문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지섬치음자의 고대음은 본 문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다루어야 향가를 포함한 고대문헌을 옳게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新羅全盛之時，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一千三百六十坊，五十五里，三十五金宅，南宅，北宅……思內曲宅……井下宅。(권1 진한)

여기서 “思內曲宅”의 思를 “시”로 읽으면 “시내굽이집(溪曲宅)”이 된다. 만약 “스” 또는 “샤”로 한다면 절대로 옳은 해독일 수 없다.

과거의 이러한 표기는 일부 한자들에서 오늘도 그 음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媿는 “나”와 “ㅣ”로 읽힌다. 《集韻》에서 보면 이 자는 新慈切로 되었고 음은 思라고 하였다. 媿의 운모는 思나 慈와 같다. 문제는 현대음에서 媿의 음이 思나 慈와 같이 “나”로 되는 외, “ㅣ”로도 되는데 있다. 이것은 치두음이 “ㅣ”계열로부터 “ㄴ”로 변화되던 시기에 별개의 한자로서의 운서적음은 思나 慈와 같이 “ㄴ”로 되고 “시집, 시택, 시부모, 시누이, 시아버지, 시동생” 등과 같이 형태부로 굳어진 것은 의연히 상고의 옛음을 보존한 것이다. 이리하여 “시”는 원류를 보지한 이두음이고 “스”는 운서적 음인

(17) 양주동 《고가연구》(증보판, 1983) 117쪽. 이승녕 《신라시대의 표기법체계에 관한 시론》(국어학연구총서, 1978) 159쪽.

(18)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학술총서 제 6집, 1981) 185쪽.

분화된 음인 것이다. 따라서 “시”는 맹아시기 한자음의 계승으로 보아야 한다. 비슷한 예를 들면 辭讓을 표준어에서는 “사양”이라 하고 방언에서는 “시양”이라 하는데 “시양”은 고대음의 잔존인 것이다.

이미 앞에서 첫째 부분에 제시한 것처럼 이두어의 “良民之妻稱”, “閭巷女之稱號”라고 하는 召史의 史를 “시”나 “이”로 읽은 것도 바로 같은 원인에서이다. 향가에 나오는 柏史, 母史, 貌史 등의 史를 지금까지 “시”로 읽은 것은 틀린 일이 아니지만 그 원인을 구명하지 않은 것은 옳은 처사라 할 수 없다. 같은 예로 《향약구급방》의 犬刀次草(自蘇), 阿次加伊를 “가히도치플”, “아지가라”로 풀이하면서 次를 왜 “치, 지”로 읽느냐 하는 원인이 없고 《구급간이방》의 人蓼를 “인심”이라 읽으면서 왜 蓼를 심이라 하는가 하는 원인 구명이 없는 것들이다. 현대어의 “심메꾼(심마니, 山蓼採取人)”의 “심”도 바로 그런 원인에서인 것이다.

우리는 차자표기 문헌에 대해 일률로 현대음 또는 중세음으로 대응시키는 편견을 버려야 하며 역사적이 못되는 연구방법도 버려야 한다. 사실 이 방면의 연구에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민족문화유산을 관심하는 모든 학자들이 깊은 주의를 돌려 협력하면 하나하나 풀려나갈 것이다.

(필자 : 中國 延邊大學 朝文系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특별 연구원)